

'군산의 밤, 역사·문화 만나다'

‘군산 국가유산 야행’ 14~16일·21~22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오는 14일부터 16일, 21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구 조선식량영단 등 원도심 일원 국가유산을 배경으로 '2026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군산 국가유산 야행'은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야간 국가유산 활용사업이다.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군산만의 문화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역사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올해 행사는 주차 별로 주제를 달리한다. 첫째 주는 '수탈과 저항의 거리'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군산의 수탈과 항쟁의 역사적 흔적을 조명하고, 둘째 주는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문

화와 생활상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야행은 구 조선식량영단,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해방굴, 구 군산세관 본관 등 원도심 국가유산 5개 공간을 연결해 진행된다.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주간 교육을 이수한 '군산야행지기' 40명을 선발했으며, 영수증 이벤트와 야간 문화장터, 숙박시설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군산 역사 탐정단-그날의 기록을 따라서'는 1930년 중의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당시 군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추적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몰입형 역사체

험 프로그램이다.

권역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신흥동 일본식 가옥 '빛의 정원', 야간 특별 개방 및 내부 해설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대야사진관', '가배와 음악 한잔', '그 시절, 우리의 군산', '군산의 국가유산', '내가 그린 군산 국가유산', '군산 전기의 역사', '등불, 야행을 밝히다' △해방굴 '해방굴에 숨은 독립군을 지원하라', '다 함께 만드는 해방굴', '객주야장', '별이 빛나는 밤에'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 대서특필', '99년 전 그날, 육구의 외침', '장터마당' △구 군산세관 본관 '금호학교 어학당', '군산의 역사를 이해하다', '군산야행 화폐 만들기', '군산야행 근대통장 만들기', '빛의 놀이터' 등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국가유산과 군산의 근대역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총 46개 프로그램이 행사 기간 동안 펼쳐진다. /군산=김민호 기자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 벤치마킹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14일 종합 미디어 퍼포먼스 관람·제작진 교류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오는 14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퍼포먼스 '잇쇼(IT SHOW): 미디어로 떠나는 세계여행' 공연에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교류와 벤치마킹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잇쇼(IT SHOW)'는 빔프로젝터 맵핑과 마임, LED 댄스 등을 결합한 융복합 미디어 퍼포먼스로, 14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총 2회 개최된다. 자체 제작한 이동식 스크린을 활용해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이 직접 미디어 퍼포먼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기존 공연과 차별화를 꾀

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공연 직후 제작진과의 실시간 질의응답(Q&A) 시간을 마련했다. 동호회원들은 무대 연출 및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직접 배우고 공유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지식을 활용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완주문화관광재단 유희태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우수한 선도 공연단체와 지역 생활문화 예술동호회가 깊이 있게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램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백제의 왕과 인물' 운영

익산시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익산 백제문화체험관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인 '백제의 왕과 인물'을 오는 29~30일에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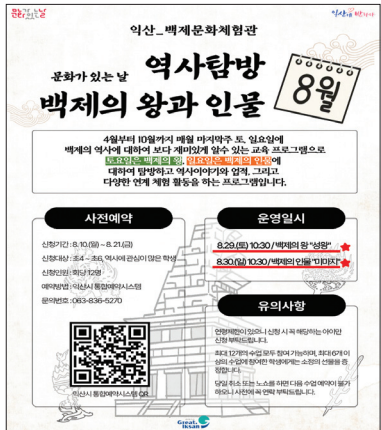
'백제의 왕과 인물'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초등학생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월 새로운 백제의 왕과 인물을 선정해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8월 프로그램은 백제의 두 번째 전성기를 이끈 성왕과 백제 문화를 일본에 전한 예술

가 미마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성왕의 사비 천도와 정치·문화적 업적을 살펴보고 미마지가 중국에서 익힌 기악을 백제와 일본에 전한 과정을 배우며, 백제가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거나 전화(063-836-527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낭만콘서트 5080' 남원 공연

14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개최

남원시에 따르면 대중음악의 아련한 향수와 감동을 담은 '2026 낭만콘서트 5080' 남원 공연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원로 대중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문화 공연을 제공하고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공연은 개그맨 김종석의 사회로 진행되며, 남원 출신 가수 소명과 지역가수 금청을 비롯해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 받아온 김상희, 김상배, 문연주, 이명주, 소프라노 안성민이 출연해 7080세대의 추억을 담은 명곡과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 세대의 음악과 문화를 함께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번 공연은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남원시가 후원해 전석 무료로 운영하고, 별도의 예매 없이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내 남원소식-공연·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문화원, '꿈의 오케스트라 호남권 합동연주회' 9일 개최

고창문화원(원장 이현곤)은 오는 9일 오후 3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2026 꿈의 오케스트라 호남권 합동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고창문화원이 주관하며 고창군이 후원하는 공연으로, 고창문화원의 '고창 모양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광주 광산구의 '꿈여울 관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90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7일부터 9일까지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는 '2026 꿈의 오케스트라 호남권 교류 캠프'가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2일 '소리 판' 완창무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직무대리 추정구)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소리꾼 임서연의 '강산제 심청가' 완창무대를 선보인다.

임서연은 제25회 서원제보성소리축제 전국 판소리·고수경연대회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라남도립국악단 장악부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총 4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 1부에서는 제37회 전국 고수대회 대명 고수부 대상(대통령상) 수상자인 김태영 고수가, 2부에서는 전북도 무형유산 판소리 장단 보유자인 조용안 고수가 장단을 맡는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매는 8월 7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유산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

김제 벽골제



**김제 벽골제에 조성된 쌍룡 조형물. (김제시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인 사적 제111호 벽골제는 김제시 부랑면 신흥리에서 신흥리에 걸친 약 3km에 이르는 제방(무 개)의 수문 장제지와 장제거 포함과 1415년 건립된 벽골제 중수비를 포함하여 1963년 1월 21일에 국가사적 제111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국가사적 벽골제와 그 배경인 김제만경동벽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김제시는 1975년 벽골제 부분발굴을 필두로 1980년 유적정화공사, 1990년 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현 벽골제단지에는 벽골제와 농경문화를 대우제로 전시 및 자료수집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김제를 발원지로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 아리랑의 자료를 전시하는 아리랑문화관, 그리고 전북미술계의 거목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나상문선생의 벽천미술관과 농경사를 주제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김제 우도농악관 등 문화시설과 각종 야외전시장로 구성되어 있다.

사적 벽골제와 각 박물관들은 오래된 고을, 김제의 지역정체성 및 문화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문화공간이자 휴식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백년지대 김제를 표방하고 있다.

- 출처: 김제시청 홈페이지 -